

조선 침략과 지배의 물리적 기반 조선군

강 창 일

조선 침략과 지배의 물리적 기반 조선군*

강 창 일

I. 머리말	V. 대중국 간섭의 본격화와 조선군 (1919~1937)
II.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과정(1880~1904)	1. 헌병경찰제의 폐지(1919)와 조선군의 개편
1. 일본군의 조선 침략개시	2. 중국 침략의 선봉
2. 韓國駐劄隊司令部의 편성(1903)	VI. 일상적 전시동원체제와 조선군 (1937~1945)
III. 대한제국 식민지화의 선봉, 한국주차군 (1904~1910)	1. 조선군에서 第17方面軍으로의 개편 (1945)
1. 러일전쟁과 韓國駐劄軍의 편성(1904)	2. 지원병과 징병을 통한 인력수탈
2. 의병운동에 대한 탄압작전	VII. 맺음말
IV. 지배기반 구축의 핵심, 조선군(1910~1919)	
1. 朝鮮駐劄軍에서 朝鮮軍으로의 개편(1918)	
2. 헌병경찰제와 통치기반 조성	

I. 머리말

일본은 1876년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다. 이후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가 패전할 때까지 조선 침략과 지배의 선봉이자 핵심적인 존재였다. 일본의 국력이 대외침략이란 형태로 표출될 때 군대는 언제나 침략의 한 가운데 있었다. 더구나 1940년대 들어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特別志願兵, 學兵, 徵兵이란 이름으로 戰場에 動員되었다. 따라서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은 일본의 군사사와 침략사를 해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넓게는 한국현대사, 좁게는 한국근현대군사사를 이해하는 폭과 깊이도 심화시키는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이다.

본 보고문은 188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의의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연구동향을 정리하겠다. 즉, 일본군사사 내지는 일본군대사의 영역에서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에 관한 연구는 해외의 다른 주둔군에 비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도 좋다. 일본군대사의 절반가량이 대외침략사라고 볼 수 있

* 이 논문은 신주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고, 그 침략의 핵심에 일본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본군대사 전체에서 볼 때 대외침략의 핵심이 關東軍, 支那派遣(駐屯)軍, 또는 대평양의 여러 곳에 주둔했던 부대였는데 비해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그 비중이 낮았다. 더구나 1980년대 경까지도 일본군대사 연구에서 경제사 연구 이외의 분과학문 가운데 식민지를 크게 고려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하게 말하면 일본군대사 영역에서 식민지가 빠져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것은 ‘전후책임’ 내지는 ‘식민지 지배책임’을 자각하고 청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일본(인)의 움직임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조선 주둔 일본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선사’의 한 영역으로 조금 진행되었다.¹⁾

일본의 조선 침략과 지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물리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에서는 군대와 경찰을 정면에서 연구한 박사학위논문 하나 없는 실정이며 연구서로는 군대를 연구한 임종국의 성과가 전부이다.²⁾ 특히 침략과 저항의 구도로 한국군대사를 설명해 왔던 한국 역사학계의 접근방식을 고려할 때 군대와 경찰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자료의 한계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사를 설명할 때 식민지 시기의 경우 韓國光復軍과 獨立軍의 무장투쟁으로 설명하고 이것과 연이어서 내지는 계승의 차원에서 한국현대군사사를 설명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연구경향이다.³⁾ 하지만 일본은 1938년 조선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한 이래 조선인 청년 가운데 “학도지원병을 포함하여 약 2만의 지원병과 약 40만의 징병”을 1945년 8월까지 실시하였다.⁴⁾ 또 朴正熙와 丁一權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대통령과 육군참모총장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본군 내지는 만주국군 출신이었다.⁵⁾ 따라서 한국현대사 내지는 한국현대군사사를 정확히 해명하는 데도 조선 주둔 일본군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자료의 한계가 역시 큰 원인이었겠지만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현실과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 허점이 있었던 것도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에 관한 연구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보고문에서는 애초의 기획 의도에 따라 일본군사사 내지는 일본의 조선 지배와 침략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겠다.⁶⁾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크게 보아 다섯 시기, 즉 1904년 전후, 1910년 전후, 1919년 전후, 1937년 전후로 나눌 수 있다. 본 보고문에서는 이를 각각 ‘제2 - 6장’으로 나누고 각 장의 ‘제1)절’에서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임무와 편제에 관해 서술하겠다. 또한 각 시기에 조선 주둔 일본군의 특징적인 행동 가운데 조선 침략이나 지배와 관련된 사항을 ‘제2)절’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겠다.

그런데 1882년 공사관의 수행원으로 일본군이 조선에 온 이후 1945년까지 이들에 대한 명칭은

1) 연구가 부진했던 또 다른 요인으로 자료부족을 들 수 있겠다. 정확히 計量化해서 말할 수 없지만, 관동군, 본토에 일본군, 지나파견군 등과 비교해 조선군이 직접 제작한 각종 보고서 등은 기대만큼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 林鍾國, 1988·1989, 《日本軍의 朝鮮侵略史》 I·II, 일월서각

3) 필자가 확인한 대표적인 개설서는 金弘이 編著한 《韓國의 軍制史》(學研文化社, 2001)이다.

4) 吉田俊隈, 《朝鮮軍歷史 別冊 朝鮮人 志願兵 徵兵の梗概》 22쪽. 吉田俊隈는 조선군 징병 주임참모를 역임한 사람이다.

5) 한용원, <한국군의 형성과정에서 일본군 출신의 리더쉽 장악과 그 영향>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6) 두 번째 연구의미와 관련해서는 후일을 기약하겠다.

다양하였다. 예를 들면 공사관수비대, 한국주차군, 조선주차군, 조선군, 제17방면군과 조선군관구 사령부 등이 있었으며, 일본군의 용어를 빌리자면 조선주차군까지는 駐劄部隊였고 조선군부터는 駐屯部隊였다.⁷⁾ 본 보고문에서는 이해의 필요상 부대의 명칭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서술의 편의상 ‘조선 주둔 일본군’이라 하겠다.

II.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과정(1880~1904)

1. 일본군의 조선 침략개시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군이 조선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880년 서울에 日本國公使館이 개설될 때 수행원으로 온 일부 사람이 따라오면서부터였다.⁸⁾ 1882년 7월 壬午軍亂에 대한 후속조치로 체결된 濟物浦條約을 계기로 公使館守備隊가 부대로서 서울에 주둔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군은 1개 대대였으며, 이듬 해 1개 중대로 축소되었다. 주권국가의 수도에 외국의 부대가 주둔하게 된 것이다. 일본군은 남산의 북쪽 기슭을 거점으로 남산동, 저동 등의 일대를 점유하며 일본인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든든한 배경으로 되었다.

그런데 당시 서울에는 청국 군대도 주둔하고 있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였다. 3천여 명에 달했던 청국 군대에 비해 1/20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규모였던 일본군으로서는 1884년 10월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후원세력이 될 수 없었다. 정변이 실패로 끝난 이후, 井上馨 특파 대사는 1885년 1월 육군 2개 대대와 군함 3척을 거느리고 조선에 도착하여 조선정부에 漢城條約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5개조로 된 조약의 내용에 따라 일본군 1개 대대가 공사관 경비를 맡는다는 명분으로 증파되었다. 같은 해 4월 伊藤博文은 李鴻章과 만나 天津條約을 체결하고 4개월 이내에 양국군대를 조선에서 철군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조약에서는 조선에 중대한 변란이나 사건이 일어나 군대를 출동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리 상대국에 통보해야하며 그 변란이나 사건이 진정되면 즉각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에 대해 청국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거두었다.⁹⁾ 일본군은 천진조약에 따라 1885년 6월 철수하였다.

1894년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일어났다. 그들의 기세는 중앙정부를 위협할 정도였다. 일본은 청국이 천진조약을 위반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5월 4일 청국측에 조선출병을 통고하였다. 이후 보병 제11연대를 선발로 5천여 명의 일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였다. 일본군의 핵심병력은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와 근접지인 충남 아산에 주로 주둔했던 청국의 군대와 달리 주로 인천과 서울에 배치되었다. 영사관과 거류민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조선정부의 일본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조선을 지배하며 조선에서 청국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¹⁰⁾

7) 駐劄部隊는 지휘부 내지는 본부가 본토에 있고 특정기간 동안 파견부대 형식으로 조선에 주둔한 경우를 말하며, 駐屯部隊는 지휘부 내지는 본부가 조선에 있어 常駐部隊인 경우를 가리킨다.

8) 金正明 編, 《日韓外交史料集成 別冊-朝鮮駐劄軍歷史》, 巖南堂書店, 6-7쪽(이하 《朝鮮駐劄軍歷史》로 줄임).

9) 한철호, 《임진왜란 이후 284년 만의 일본군 재등장》 이재범 외 지음,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사》, 중심, 2001, 222쪽.

실제 일본군은 6월 21일 새벽 경복궁을 포위하고 대원군을 내세워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민씨 척족정권을 무너뜨리고 金弘集을 영의정으로 하는 친일 개화파 정권을 수립하여 갑오개혁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청국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개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정부로 하여금 청국군대의 구축을 의뢰하는 공식문서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하였다. 당시 일본의 대본영은 7월 19일자로 “청국군이 늘어나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하라”는 개전 허가를 내린 상태였다. 고종이 일본의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894년 7월 23일 “조선왕궁에 대한 위협적 운동계획”에 따라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였고, 민씨 척족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다음 대원군의 도움으로 조선정부를 확실히 장악하게 되었다.¹¹⁾ 이후 일본군은 청국과의 전쟁에서 조선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¹²⁾

2. 韓國駐劄隊司令部の 편성(1903)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청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선정부를 지배하였다. 하지만 명성황후 등의 저항은 여전히 걸림돌이었다. 1895년 10월 일본은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이에 반발하는 을미의병에 대해 2개 대대를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조선이 일본 자신의 것으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때인 1896년 2월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갔다. 일본은 고종의 俄館播遷으로 확보한 기득권을 한 순간에 날려버릴 위기에 직면하였다.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의 운명은 같은 해 5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고무라 웨베르 각서>에 의해 결정되었다.¹³⁾ 즉, 러시아군과의 同數原則에 따라 일본군은 이전에 비해 반수 가량이 줄어들어 4개 중대에 200여 명의 헌병이 주둔하게 되었다.¹⁴⁾ 이 때부터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1년씩 교대하게 되었으며, 1903년 12월에는 韓國駐劄隊司令부가 서울에 설치되었다.¹⁵⁾ 일본군의 입장에서 외교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 않고 지휘체계를 안정화시키고 병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在朝日本人의 보호와 전신 및 철도경비 등을 주로 담당하였

10) 조재근, <청일전쟁에 대한 농민군의 인식과 대응>,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452쪽.

11) 이상은 나카츠카 아키라 지음, 박맹수 옮김,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 60 - 88쪽 참조.

12) <표> 청일전쟁기(1894-1895) 일본군 현황

釜山守備隊	1894년 6월부터 歩兵第二十一連隊 第八中隊가 담당. 뒤에 洛東電線警備隊로 불림. 같은해 10월6日 後備歩兵第十連隊 第四中隊로 교대. 1896년 2월까지 존속함.
仁川兵站守備隊	同年 6월부터 歩兵第二十一連隊 第十一中隊, 騎兵七騎가 담당. 8월중순에 歩兵第二十二連隊 第五中隊와 교대. 同年 10월6日, 後備歩兵第六連隊 第六中隊와 교대함. 日清戰爭後 解体.
龍山兵站守備隊	同年 6월부터 歩兵第十一連隊 第三中隊, 騎兵五騎가 담당. 8月中旬에 歩兵第十二連隊 第十二中隊와 교대. 10월4일부터 仁川을 포함해 後備歩兵第六連隊 第六中隊가 담당. 日清戰爭後 解体.
京城守備隊	同年 6월부터 歩兵第十一連隊 第一大隊 (第三中隊欠) 및 騎兵五騎가 배치. 同年 8월부터 歩兵第二十二連隊 第二大隊 (第五中隊欠) 와 交代. 同年 10월6일부터 同第二十二連隊 第七中隊만 남겨 두었고, 11월초순에 後備歩兵第十八大隊가 교대하였다.
臨津鐵嶺獨立支隊	歩兵 少佐 야마구치 케이조(山口圭藏)가 지휘하는 歩兵第二十一連隊 第二大隊 (第七,八中隊欠) 및 同第二中隊 騎兵一小隊, 砲兵第五中隊 (一小隊欠), 工兵一小隊가 配置.
元山守備隊	1894년 9월 25일부터 새로이 後備歩兵第六連隊 第二中隊가 配置됨.

出典：《朝鮮駐劄軍歷史》，12-20쪽.

13) 外務省 編, <朝鮮問題に關する日露兩大表者間覺書>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174-175쪽.

14) 林鍾國, 앞의 책 I, 84 - 85쪽.

15) 《朝鮮駐劄軍歷史》，21쪽.

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한제국이란 주권국가에 일본군이 있으므로 해서 일본이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넓어졌다고 하겠다.

Ⅲ. 대한제국 식민지화의 선봉, 한국주차군(1904~1910)

1. 러일전쟁과 韓國駐劄軍의 편성(1904)

1904년 2월 6일 일본은 러시아와 교섭을 중단함과 동시에 한국임시과건대를 편성하여 한국에 파견하였다. 서울을 작전의 근거지로 선점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한국과건대는 8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이어 다음 날 일본 해군이 인천 앞 바다에 있던 러시아함대를 격침시킴으로써 러일전쟁이 개시되었다. 조선에서 군사적 우위를 선점한 일본은 2월 23일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하여 <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군이 요구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강요받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04년 3월 10일 동경에서 한국주차군의 편제를 결정하고, 사령부의 편성을 완료하였다. 주차군 예하에는 보병 6개 대대 半, 兵站監部, 臨時軍用鐵道監部, 駐劄憲兵隊, 駐劄電信隊, 駐劄病院 등이 있었다. 처음 한국주차군이 관할하는 管區는 대동강에서 陽德, 德原을 잇는 이남지역이었으며, 露日戰爭의 主戰線이 점차 만주로 옮겨가자 5월경에 이르러 압록강변까지 확대되었다. 1905년 1월 한국주차군 예하에 鴨綠江軍이 편성되어 서북지방과 압록강 일대에 주둔했지만, 주전선이 만주로 이동됨에 따라 압록강군은 4월에 滿洲軍總司令部의 예하로 편입되었다.¹⁶⁾ 전쟁의 와중에서 일본군은 部隊의 給養을 “가능한 한 지방물자”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자와 인력, 牛馬의 徵用 등을 조선인들에게 강요하여 많은 부담을 주었다.¹⁷⁾

1905년 9월 휴전이 성립되고 10월에 포츠머스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았다. 이에 일본은 곧바로 한국주차군사령부를 平時編制로 再編하여 함흥에 사령부를 둔 제13사단과 평양에 사령부를 둔 제15사단을 주차시켜 향후에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함경도를 중심으로 서울 이북에 병력을 집중 배치시켰다. 반면에 그 이남의 남부지방에는 보병 제30여단을 배치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군사적 조치까지 완료하자 1905년 12월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하여 乙巳條約을 체결하고, 이듬 해 2월부터 統監府를 운영하였다.

이토오 초대통감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주차군에 대한 軍令權을 갖고 있었다.¹⁸⁾ 이는 1919년 3·1운동 때까지 적용된 조항이며, 군대를 앞세워 대외침략을 벌였던 일본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항이다. 이토 통감은 군대 대신에 민간인 경찰력을 확장시켜 군사상 필요 없는 지점에 顧問警察을 배치하고 대한제국의 치안을 유지할 생각이었다.¹⁹⁾ 이를 위해 대한제국

16) 《朝鮮駐劄軍歷史》, 25쪽, 27쪽.

17) <韓國駐劄軍陣中紀要> (防衛廳防衛研究所 所藏資料).

18) <勅令 第267號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1905. 12)> ; <勅令 第205號 韓國駐劄軍司令部條例(1906. 7. 31)> 대한민국국회도서관, 《統監府法令資料集》 上, 1972, 2쪽, 31-32쪽.

19) 松井茂, <目醒め行く朝鮮民族へ>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新朝鮮新聞社, 110쪽. 자세한 것은 松田

의 内部 소속인 警務書(道) 산하에 警務分署와 分派所를 계속 신설하였다. 반면에 헌병대는 1906년 10월 29일 韓國駐劄憲兵隊 대신 第14憲兵隊로 개칭·축소되었다. 또한 일본은 군비절감 등을 이유로 2개 사단 이상을 조선에 주둔시킬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1907년 3월까지 제15사단을 복귀시키고 제13사단만을 잔류시켰다. 제13사단은 사단사령부와 1개 연대를 제외한 전 병력을 서울 이북에 배치했으며, 헌병대도 1907년 6월 현재 284명의 헌병 가운데 전주와 부산의 分隊, 그리고 청주와 인천의 分遣所를 합친 59명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서울과 그 이북에 배치하였다. 한국주차군은 병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그 以北에 兵力을 中點配置하는 기본방침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군은 제1 가상적국으로 러시아를 상정하고, 장차 그들을 상대로 만주와 우스리만방에서 작전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²⁰⁾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對露, 對蘇作戰에서 對美作戰 中心으로 作戰任務를 전환한 1945년 1월까지 이 배치방침은 바뀌지 않았다.²¹⁾

1907년 7월의 丁未條約이 체결되고 8월 1일자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본에 의해 해산당하였다. 사실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은 1904년 8월 野津鎮武 중좌가 군부 고문이 되면서부터였다. 즉 노즈 중좌는 1904년 9월 군령기관으로서의 元帥部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대신에 軍部의 역할을 강화시키면서 대한제국의 군사권을 군부고문의 손아귀에 넣는 한편, 재정문란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1905년 4월과 1907년 4월에 중앙의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를 축소하는 군제개편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1908년 군대해산 당시 대한제국의 군인은 편제상 8,700여 명에 불과하였다.²²⁾

일본은 정미조약과 군대해산에 대한 조선인의 반발을 예상하고 조약 체결 당일 날 보병 제12여단에 조선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과견부대는 주로 부산, 서울, 평양간의 철도 연선에 배치되었지만, 의병투쟁의 급격한 확대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한국주차군 사령관 長谷川好道는 9월 7일자 <포고>에서 “멸진의 수단”으로 의병과 양민을 구별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한 사람도 죄를 묻겠다고 선언하였다.²³⁾ 이어 일본은 9월 26일에 다시 臨時派遣騎兵隊를 편성하여 주로 서울 以南에 배치하고, 12월경에 北·中·西·南部 守備管區制를 南北部의 守備管區制로 바꾸고 병력을 分散配置하였다.²⁴⁾ 의병이 출현한 모든 장소에서 구체적인 탄압작전을 벌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또한 일본은 헌병대 개편 1년만인 1907년 10월 제14헌병대를 다시 韓國駐劄憲兵隊로 개칭하고, 기관과 병력을 대폭 증강시켜 1908년 1월 헌병분견소를 460여 개에 2,074명을 分散配置하였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은 진압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양되어 갔다.²⁶⁾ 이에 통감부는 1908년 5월 2일 군, 경찰 관계자들과 만나 統監府會議를 열었다.²⁷⁾ 회의에서는 본국에 병력을 다시 과견

利彦, <朝鮮植民地化の過程における警察機構(1904-1910年)>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 1993 참조.

20)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大本營陸軍部<1>》, 1967, 158-162쪽.

21) 이에 대해서는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 현실》 49, 2003 참조.

22) 자세한 내용은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제5장’ 참조.

23) 《福岡日日新聞》 1907. 9. 13.

24) 《朝鮮駐劄軍歷史》, 106-107쪽. 守備管區’는 ‘守備區’의 상위 단위이다.

25) 《朝鮮憲兵隊歷史(1906.10-1908.12)》 2, 168쪽.

26) 그 구체적인 통계는 韓國駐劄憲兵隊, <賊徒ノ近況> 韓國駐劄軍司令部 編, 《明治40-43年 暴徒討伐概況》(千代田史料 623) 참조.

27) 상세한 회의 내용은 辛珠柏, <湖南義兵에 對한 日本 軍 憲兵 警察의 彈壓作戰> 《歷史教育》 87, 2003, 224-230쪽 참조.

해 주도록 요청하고, 헌병보조원제도를 실시하며, 한국주차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지휘권을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경비전화를 더욱 확장하고 언론보도를 적극 통제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 회의에서 더욱 주목되는 점은 강경한 탄압작전 일변도로 작전을 벌이지 않고 의병포로를 도로 공사에 투입한다든지 귀순정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유화전략도 병행하였다. 새로운 작전은 효과가 있었다. 강원도, 경상북도의 북부, 경기도,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의병투쟁의 열기가 식어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남지방의 의병활동은 1908년 하반기에 들어서도 식을 줄 몰랐다. 오히려 전국적인 의병투쟁의 열기를 주도하였다. 이에 일본 육군은 1907년 12월 임시로 결정된 南部守備管區를 制度化시키고, 1909년 5월 4일 남부지방에 주둔할 臨時韓國派遣隊司令部를 편성하였다. 사령부 산하에 2개 聯隊에 총 인원 1,916명을 편성하고 大隊 이상을 상주시켜 탄압작전을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지휘하려고 하였다. 1909년 6월 현재 한국주차군의 수비구역을 간략히 표시하면 뒤의 <지도 1>과 같다.

새로 편성된 임시한국과견대사령부는 특단의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남한 대토벌작전’이다. 탄압작전은 1909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국내에서 전개된 조직적인 의병투쟁은 이 때를 기점으로 사실상 끝났다. 그것은 당시까지 존재했던 조직적인 항일투쟁세력이 국내에서 없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1910년 6월 일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제국의 경찰권까지 빼앗을 수 있었다. 이로써 1909년 3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병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일본 내각의 방침이 사실상 완료되었다.²⁹⁾

2. 의병운동에 대한 탄압작전

통감부와 한국주차군사령부가 의병투쟁 세력을 탄압하는 대책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처음 을사의병이 일어났을 때부터 1908년 5월경까지는 군대를 동원하여 의병을 탄압하기는 했지만 소대나 중대단위로 이동하며 탄압 일변도로 작전하였다. 탄압작전도 군, 헌병, 경찰이 제 각각이었다. 하지만 1908년 5월 통감부회의를 계기로 강경 일변도의 탄압작전은 폐기되고 회유전술도 탄압작전에 가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주차군사령부가 탄압작전의 중심에서 서서 제일선에 나섰다. 이때부터 경찰은 정보수집과 지방치안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새로운 탄압작전의 결과 통감부와 한국주차군사령부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호남지방에서는 예외였다.³⁰⁾

호남지방에서 의병투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을 들면 첫째, 한국주차군은 중부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있는 대신 호남의 군병력은 기본적으로 적었다. 둘째, 호남지방에서 한국주차군의 작

28) 자세한 내용은 辛珠柏, <湖南義兵에 對한 日本 軍 憲兵 警察의 彈壓作戰> 앞의 책 87, 225 - 230쪽 참조. 제23, 27연대가 파견되었고, 4,009명의 조선인 보조원이 채용되었다.

29) 外務省 編, <韓國併合に關する件(1909. 3. 30)>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1965, 315 - 316쪽.

30) 이 보고문에서는 의병 전체에 대한 일본군의 탄압작전을 살펴보는 것이 곤란하므로 탄압작전이 가장 종합적이고 특징적이었던 ‘남한대토벌작전’에 대해서만 고찰하겠다.

일본 군·헌병·경찰은 1906년 - 1911년 사이 의병탄압 와중에서 136명이 사망하고, 277명이 부상당하였다. 의병은 17,779명이 죽임을 당했고, 3,706명이 부상당했으며 2,139명이 체포되었다(朝鮮駐劄軍司令部, 《朝鮮暴徒討伐誌》, 1913, 附表).

전은 분산적이거나 심지어 위력을 과시하는 시위적인 행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셋째, 호남의병은 뛰어난 위장활동과 통치기관의 힘이 약한 곳만을 골라 공격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호남의병 부대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병과 직접 연관이 없이 자신의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다.³¹⁾

남한대토벌작전의 지휘자인 임시한국과견대 사령관 波邊水哉는 이제까지의 탄압작전이 “부분 토벌 또는 소규모 계획에 의한 소탕”이었기 때문에 의병이 “右逃左徙의 책에 편승”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地區別 作戰이 의병에게 “시일을 遷延시켜 급속 효과를 거두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³²⁾ 한국주차군은 이전처럼 의병의 출몰지역에 따라 일일이 작전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의병을 다른 지방의 의병으로부터 분리·고립시키고, 대규모 병력을 일시에 동원하여 호남이란 제한된 공간을 점차 좁혀가며 집중적으로 의병을 탄압하는 새로운 탄압작전을 수립하였다.³³⁾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임시한국과견대사령부가 수립한 탄압작전의 기본은 9월 1일부터 각 중대의 최소한의 경비인원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대략 40일간 전북의 長萃島, 부안, 태인, 葛潭, 남원, 경남의 花開, 하동, 高浦를 연결하는 南西地域에서부터(<지도 2>의 ㉠-㉠) 의병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촌락, 논밭, 삼림, 산악을 구분하지 않고 수색하며 木浦를 최종 목적지로 하여 西海岸 및 南海岸과 島嶼地域까지 南下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임시한국과견대는 작전지역을 크게 둘로 나누었는데, 전북의 契樹驛에서부터 천연의 경계선인 영산강을 따라 목포까지를 양분하여 그 以西地域을 제1연대, 以東地域을 제2연대에 분담시켰다(<지도 2>의 ㉡-㉡). 그리고 동원되는 병력에 비해 두 작전지역이 광범위하므로 작전 시기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점차 내륙에서 남해안과 남서해안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었다(<지도 2>의 ㉠-㉠->㉢-㉢). 동시에 해안 및 제1, 2연대의 경계인 영산강유역, 그리고 섬진강유역의 도하 예상지점에 필요한 감시병을 배치하여 포위선 밖으로 의병이 이동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작전의 결과 9월 한 달 동안 373명의 의병이 사망하고 979명의 의병이 체포되었는데 이를 ‘제1차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1차 작전계획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기대만큼 의병이 체포되지 않았다. 더구나 주요 지도자들도 검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안 쪽으로 밀린 의병들이 島嶼地域에서 계속 투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이에 사령부에서는 귀순정책을 부활시키고, 제1차 계획의 제3기 작전에 투입될 병력을 2개 중대로 한정하는 대신 지금까지의 작전구역을 되돌아가면서 수색을 반복하였다. 10월부터 시작된 이 작전을 ‘제2차 계획’이라 한다. 그 결과 제2차 계획 때는 사망자(57명)보다 자수자(708명)가 훨씬 많았고, 호남의병의 핵심 지도자였던 沈南一과 林昌樸가 10월 9일과 13일에 각각 체포되었다. 체포된 의병 가운데 574명은 목포와 하동 사이의 도로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었다.³⁴⁾ 福利政策을 통해 匪民分離를 실현하면서 포로들이 다시 의병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31) 자세한 내용은 신주백, <湖南義兵에 對한 日本 軍 憲兵 警察의 彈壓作戰> 앞의 책, 87, 232-233쪽 참조.

32) 臨時韓國派遣隊司令部, <南韓暴徒大討伐概況> 韓國駐劄軍司令部 編, <明治40-43年 暴徒討伐概況>

33) 남한대토벌작전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신주백, <湖南義兵에 對한 日本 軍 憲兵 警察의 彈壓作戰> 앞의 책 87, 236-251쪽으로 대신하고 여기에서는 간략히 개요만 정리하였다.

34)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17, 254쪽.

IV. 지배기반 구축의 핵심, 조선군(1910~1919)

1. 朝鮮駐劄軍에서 朝鮮軍으로의 개편(1918)

일본은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한국주차군을 조선주차군으로 개편하였다. 조선주차군의 지휘권은 두 갈래였다. 즉, 통감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선주차군의 軍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육군 대신의 지휘를 받았지만, 조선의 통치와 관련된 부분은 조선총독의 지휘를 받았다. 따라서 조선총독은 조선주차군에 대해 출동명령권을 갖고 있었다. 조선총독의 군대 지휘는 조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조선총독은 “필요에 따라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軍人·軍屬을 만주, 北淸, 露領沿海州에 파견”할 수도 있었다.³⁵⁾

한국주차군의 作戰圈域은 1907년 <帝國의 國防方針>과 함께 제정된 <帝國軍의 用兵綱領>에 충실한 조치였다. 용병강령에 따르면, 육군은 “만주, 烏蘇利 및 한국을 作戰地로 하고, 本作戰을 만주에서, 支作戰을 오소리방면”에서 수행한다는 전략이었다. 이 때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은 적(러시아-인용자)의 유린”으로부터 방어한다는 방침이었다.³⁶⁾ 일본의 식민통치자들은 조선을 발판으로 대륙침략을 실시하기 위해 조선을 확실히 지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물리적 기반이었고, 대륙침략의 최전방부대였다. 南守北進에 따라 육군의 주된 작전권역 밖에 있었던 臺灣軍과는 확연히 다른 위상이다.

조선 주둔 일본군의 위상과 임무, 그리고 지휘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일본이 조선에서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의병 잔존세력에 대한 진압이었다. 당시 의병 잔존세력이 황해도 일대, 그리고 강원도 남부와 경상북도 북부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로서는 이들이 치안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조선주차군은 임시한국과견대 소속 제1연대와 헌병을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출동시켜 19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집중적인 탄압작전을 벌였다.³⁷⁾ 또한 제29, 65연대 병력을 동원하여 황해도 일대에서 1910년 11월경부터 4개월 동안, 1911년 9월 하순부터 40일 동안 각각 집중적인 탄압작전을 벌였다.³⁸⁾ 이로써 의병 잔존세력의 저항도 사실상 끝나고 주요 지도자였던 韓貞滿, 金貞安, 蔡應彥 등이 모두 체포되었다.

조선총독부와 조선주차군은 의병 잔존세력에 대한 진압작전이 성공을 거두어가자 “총독정치를 더욱 보급”³⁹⁾하기 위해 1911년 10월부터 파견소와 출장소를 대폭 늘리며 헌병대를 분산 배치하였다. 조선주차군은 조선에서의 일상적인 치안확보의 임무를 헌병경찰대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

35) <陸軍省受領 密受第320號 朝鮮總督御委任ノ件(1910. 9. 1)> 《密大日記》 M43-1, 278 - 279쪽.

36) <帝國軍의 用兵綱領>은 山田郎 編, 《外交資料 - 近代日本の膨張と侵略》, 新日本出版社, 1997, 126쪽 참조.

37) <朝參報 第1號 暴徒討伐施行經過ノ件報告(1911. 1. 9)> 《密大日記》 M44, 1037 - 1041쪽.

38) 獨立運動史資料集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資料集》 3, 高麗書林, 1971, 813 - 819쪽; 朝鮮駐劄軍司令部, 《朝鮮暴徒討伐誌》, 1913, 173 - 177쪽.

39) 松田利彦 編, 《朝鮮憲兵隊歷史》 3, 不二出版, 2000, 113쪽.

라 1912년 말경부터 분산배치방침을 집중배치방침으로 전환하여 1913년에 대체로 완료하였다.⁴⁰⁾

평시에는 주로 헌병경찰이 치안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최후의 보루는 군대였다. 더구나 조선에서 당장 치안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함에 따라 대외침략의 선봉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조선 주둔 일본군의 기본임무인 국방군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 가장 불안정한 요소가 바로 조선에 주둔한 부대를 2년마다 교대하는 문제였다. 駐劄部隊를 駐屯部隊로 전환시켜 常駐시킬 필요가 우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2개 常駐 師團을 설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에는 수비를 위해 종래 1個 師團 半의 兵力을 內地에서 派遣해 교대 주차하였으나 이 제도는 신 영토의 治安維持上 적당하지 않음은 물론 軍隊의 建制를 破하고 教育과 經理를 沮 할 뿐 아니라 戰時 動員上 支障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대를 夜戰에 사용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여 國防 計劃에 多大한 支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國防上 常備軍 兵力 增加의 必要가 있으므로 정부는 2개 사단으로 증설해 이것을 朝鮮에 常置하고 동시에 교대 파견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하여 본년도(1915년 -인용자)에 臨時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쳐 실시의 단서를 열었다.⁴¹⁾

이에 따라 1918년 조선주차군사령부 대신에 조선군사령부가 창설되었고, 그 산하에 제19사단(1916. 4~1919. 2), 제20사단(1919. 3 업무시작 - 1921. 4)이 있었다. 조선(주차)군사령부 산하에는 주차사단, 임시한국파견대, 한국(주차)헌병대, 진해만요새사령부, 영흥만중포병대대, 영흥만요새사령부, 조선(주차)육군군악대, 조선(주차)육군창고, 조선(주차)위수병원, 조선(주차)위수감옥이 있었다.⁴²⁾

2. 헌병경찰제와 통치기반 조성

헌병경찰제의 제도적 기틀은 1907년 <칙령 제323호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에 관한 건(10. 8)>이 공포된 것을 계기로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이 군사경찰로서의 임무와 더불어 통감의 지휘를 받으며 “주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로서의 업무도 담당하면서부터였다.⁴³⁾ 헌병경찰제도는 1909년 6월 24일 한국주차헌병대 사령관 明石元二郎 소장이 대한제국의 경찰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경찰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대한제국 정부와 체결하면서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일본은 이 때 한국주차헌병대를 13개 道에 헌병대 본부를 둔 韓國駐劄憲兵隊司令部로 확대·개편하였다. 아카시 헌병대 사령관은 경찰의 총책임자인 警務總長까지 겸임하였고, 佐官의 道憲병대장 역시 道警務部長을 겸임하였다.

헌병경찰제도는 ‘한일병합’ 과정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정치적 저항을 탐지하고 제압하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다. 또한 의병 잔존세력을 진압해야 하는 등 치안을 엄밀히 안정화시키는데 있어 통일된 체계를 갖출 필요 때문에 설치된 장치였다. 일본 본국의 입장에서 보면 헌병경찰제도

40) 《朝鮮總督府施政年報(大正元年)》, 82 - 83쪽 ; 《朝鮮總督府施政年報(大正3年)》, 66쪽.

41)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5年度)》, 87쪽.

42) 《朝鮮駐劄軍歷史》, 42 - 43쪽 사이에 있는 <韓國駐劄軍司令部並隸下常設部隊重要職員交迭一覽表(1916. 4)> 참조.

43) 宋炳基 編著, 《統監府法令資料集》上,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3, 461쪽.

는 육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였다. 더구나 헌병경찰제도는 당시 일본 정계와 육군을 장악하고 있던 長州陸軍閥, 좁게 말하면 山縣閥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선에서 구체적으로 관철시키는 통로이자, 본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기도 하였다.⁴⁴⁾

1911년 10월경부터 ‘총독정치를 더욱 보급’하기 위해 헌병경찰은 분산 배치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같은 해 <사무분장내규(12. 18)> <헌병복무세칙(12. 27)> 등을 제정하여 이에 대비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업무를 매년 조금씩 늘려갔다. 즉, 헌병경찰은 이미 보통경찰로서의 업무인 민사조정 사무, 징세활동 지원, 묘지 장례 火葬場 화약단속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1912년 4월부터 검찰의 집달리 사무, 내무부 소관의 위생 사무, 탁지부 소관의 향만검역, 移出牛檢疫, 密漁取締, 港則執行 事務, 1912년 8월부터 총포화약류취체 사무, 11월부터 삼림·산야의 감시취체 사무, 12월부터 도로의 수축·유지 사무를 새로 담당하였다. 또 1913년 4월부터 국경관세 사무 등도 관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3월 23일에 늘어나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경무를 더욱 조밀”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헌병장교를 警視, 준사관 하사를 警部, 상등병을 순 사, 헌병보조원을 순사보에 준하는 복무를 하도록 조치하였다.⁴⁵⁾ 조선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헌병경찰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1911년 이래 1918년까지 헌병대의 직원은 7천 9백 명 전후, 경찰 직원은 5천 6, 7백 명 전후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일본 정부가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조선총독부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⁴⁶⁾ 조선총독부는 재정 사정을 들어 헌병대를 축소하고 편제를 바꾸라는 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조선 통치에서 현재의 편제와 인원을 유지하겠다고 이를 거부하였다.⁴⁷⁾ 헌병과 경찰 병력을 늘릴 수 없었던 조선총독부는 행정조직과 헌병경찰조직을 일치시키고 말단 기관의 숫자를 늘리면서 수요에 대처해 갔다.

V. 대중국 간섭의 본격화와 조선군(1919~1937)

1. 헌병경찰제의 폐지(1919)와 조선군의 재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의 지배자들은 조선인의 독립의지에서 만세시위의 근본원인을 찾지 않고 민족자결에 현혹된 조선인이 헌병경찰통치에 반발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⁴⁸⁾ 일본 정부는 “양민 보호”라는 이름으로 6개 대대의 병력과 4백 명의 헌병을 긴급히 조선에 파견하여 4월 22일까지 조선군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곳에 배치를 완료하였다. 조선 주둔 일

44) 辛株柏, <1910年代 日帝의 朝鮮統治와 朝鮮駐屯 日本軍- '朝鮮軍'과 憲兵警察制度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109, 2000.6 ; 당시 일본 내 정치구도와 한도 지배전략의 연관성은 강창일, <일제초기 식민통치의 전략과 내용> 《일제식민통치연구 1 : 1905 - 1919》, 백산서당, 1999 참조.

45) 松田利彦 編, 앞의 책 3, 113쪽. 160 - 161쪽. 헌병경찰의 다양한 임무에 대해서는 姜德相, <憲兵政治下の朝鮮> 《歷史學研究》 321, 1967, 3쪽 참조.

46) 松田利彦, <日本統治下の朝鮮における 憲兵警察機構(1910-1919年)> 《史林》 78-6, 1995, 32-42쪽.

47) 山本四郎 編, <陸相宛寺內總督書翰-朝鮮憲兵隊縮小反對陸軍大臣> 《寺內正毅關係文書 首相以前》, 京都女子大學, 1984, 461쪽.

48) 《原敬日記》 1919. 3. 2

본군은 보병 제79연대 소속의 부대원이 4월 15일 화성군 제암리에서 주민을 학살한 경우, 시위대를 향해 직접 사격하거나 위협사격을 가하여 해산시킨 경우, 위력시위를 하며 시위대를 위협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였다.⁴⁹⁾

3·1운동 이후 일본은 조선에서의 통치방침을 조선특별통치주의에 입각한 무단통치로부터 '점진적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한 문화통치로 바꾸었는데,⁵⁰⁾ 조선 주둔 일본군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우선, 조선총독과 조선군사령부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 1919년 8월의 관계개정에 따라 조선총독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조선군에 대한 출동명령권이 출동요청권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조선총독은 조선군사령관에게 조선의 치안과 관련하여 직접 명령할 수 없게 되었다. 형식적인 절차만 따진다면 조선총독으로부터 병력출동을 요청받은 조선군사령관은 본국의 육군대신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병력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총독부와 군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됨에 따라 조선총독부 官房에 설치되어 있던 務官部도 폐지되었다. 이 때부터 1937년까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은 조선총독부와 조직적인 관계를 맺는 독립된 부서를 두지 않았다.

둘째,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전환되면서 일상적인 치안업무, 행정사무에 직접 관여했던 헌병은 본연의 업무인 군사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조선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당분간 국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제부터 일상적인 조선의 치안업무는 '1面 1駐在所' 방침에 따라 경찰이 맡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부족한 경찰병력을 8,054명의 헌병 및 헌병보조원으로 충당하였다.⁵¹⁾ 다만, 헌병은 도지사 및 경찰서장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었다.⁵²⁾

셋째, 헌병이 맡고 있던 국경의 감시 및 통제 업무는 1922년 5월에 완전히 폐지되었고 그 임무를 경찰이 대신하였다.⁵³⁾ 보통경찰제의 실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군 전체적으로 진행된 軍縮과도 연관이 있었다. 조선헌병대는 <軍令陸乙 第3號 大正12年軍縮整理要領>과 <陸密第73號 大正13年軍費整理要領細則>에 따라 1923년 4월 1일자로 義州와 淸州의 憲兵隊本部를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분대 4개, 분견소 24개도 철폐하였다.⁵⁴⁾ 조선헌병대는 이 때부터 1937년까지 5개 헌병대본부체제로 560여 명에서 580여 명의 인원을 유지하였다.

넷째, 3·1운동으로 인해 다시 실시되었던 分散配置는 1922년 10월부터 1923년 3월 사이에 集中配置方針으로 바뀌면서 각지의 소부대는 기존의 소속부대로 집중하였다. 그러면서 조선군은 국경수비대를 제20사단 산하에 2개, 제19사단 산하에 3개 편성하였다. 다시 1926년에 제19사단의 수비대를 4개로 재편하였는데, '陸密 제49호'로 通牒된 <朝鮮國境守備隊永久配置要領(1926. 2. 20)>에 따라 작성된 <배치표준표> 상에 국경수비대원은 모두 합쳐 2,068명이었다.⁵⁵⁾ 국경수

49) 화성시·수원대학교박물관, 《화성지역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2003;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5, 미스즈書房, 1967, 155쪽. 161 - 168쪽. 180 - 188쪽. 203 - 207쪽. 215 - 218쪽.

50) 이에 대해서는 신주백, <일본의 '동화'정책과 지배전략(1870년대-1945)-통치기구 및 학교교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식민지 통치정책 비교》, 선인문화사, 2004 참조.

51) 《朝鮮總督府施政年報(自大正7年至大正9年度)》, 264 - 265쪽. 보통경찰의 전환에 관해서는 松田利彦, <日本統治下の朝鮮における警察機構の改編> 《史林》 74-5, 1991 논문 참조.

52) <訓令 第2號 朝鮮ニ於ケル憲兵ノ行政警察及司法警察ニ關スル服務規程ノ制定(1925. 1. 13)> (松田利彦 編, 앞의 책 6, 101쪽),

53) 《朝鮮總督府施政年報(大正11年度)》, 353쪽.

54) 松田利彦 編, 앞의 책 6, 77 - 78쪽.

비대는 재만조선인 사회의 중심인 東滿地方과 蘇聯에 인접해 있는 곳에 더 많이 배치되었으며, 이것이 조선군이 高定員을 유지했던 背景이다.

2. 중국 침략의 선봉

3·1운동 이후 조선 주둔 일본군은 조선의 현실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국방군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외부로 돌려졌다. 실제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1937년 사이에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움직임을 보면, 제19사단은 함경도에 주둔하며 對露作戰에 대비하면서 주로 東滿地方의 조선인문제에 직접 개입하였고, 제20사단은 南滿地方과 中國本土에 출동할 때 주로 동원되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1920년 10월부터 간도침략일 것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1931년 9월부터 시작된 만주침략이다.

전자의 경우를 보면, 3·1운동 이후 동만지방에 항일열기가 고조되자 조선군사령부는 동만지방 무장단체의 움직임을 “治鮮上에 미치는 影響 지극히 크다”고 보고 신경을 곤두세웠다.⁵⁶⁾ 애초 조선군은 외무성 소속의 영사관 경찰을 강화시켜 동만지방의 치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⁵⁷⁾ 그런데 1920년 8월경부터 독자행동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대책회의, 이른바 ‘경성회의’에서 <間島地方不逞鮮人剿討計劃>을 확정하였다.⁵⁸⁾ 조선군은 계획에 따라 “9월 하순”⁵⁹⁾ 동만지방을 침략하려 했지만, 독자적인 출병을 감행할 마땅한 명분이 없었다. 외무성이 전면에 계속 나서고 있었고, 봉천군벌도 독립군의 감시와 해산 등 일본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으며, 독립군 스스로 백두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마침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된 일본군이 마적을 사주하여 동만지방의 치안을 교란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선군에 제안하였다. 조선군은 이 계획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1920년 9월 12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인 마적단이 훈춘 시가지를 습격하고 영사관을 공격한 ‘훈춘사건’이 일어났다.⁶⁰⁾ 조선군은 10월 7일 제19사단 소속인 보병 제37여단의 東正彥小將이 이끄는 부대 등을 동만지방에 출동시켜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하거나 불태운 ‘경신참변’을 일으켰으며, 그러는 와중에 화룡현 청산리에서 독립군과 싸웠지만 이들을 진압하는 데 실패하였다.⁶¹⁾ 동만지방을 침략한 조선군은 1921년 5월 8일, 헌병대는 5월 30일에 와서야 완전히 철수하였다

후자의 경우를 보면, 1931년 9월 관동군은 柳條湖事件을 조작하여 만주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은 9월 19일 독립비행중대를 奉天에 파견하였고, 혼성 제39여단도 파견하려고 하였다. 혼성여단의 파견은 육군성의 반대로 잠시 주춤거리다 20일 오전 11시경 조선군사령관의 단독 결정으로

55) <朝密參 第52號 第19師團步兵聯隊增加定員配屬換並朝鮮軍司令部編制改正二關スル意見提出ノ件通牒 (1926. 6. 18)> 《密大日記》 T16

56) 朝鮮軍司令部, <不逞鮮人二關スル基礎的研究>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アジア問題研究所, 1982, 54쪽.

57) <間島及琿春方面警察力增加二關スル件(1920. 5. 29)> 《密大日記 5冊の内 1》 T9, 1186-1193쪽.

58) 이에 대해서는 <間島出兵史> 下, 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 2, 1970, 161 - 170쪽 참조.

59) 姜德相 編, 앞의 책 28, 129쪽.

60) 박창욱, <훈춘사건과 ‘장강호’마적단> 《역사비평》 51, 2000 여름.

61) 청산리전투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있었다.

이루어졌다. 이후 혼성 제39여단은 봉천과 길림 일대에서 북진하고 있던 관동군부대의 후방을 지키며 항일무장투쟁세력을 탄압하다 1932년 5월 조선으로 돌아왔다.⁶²⁾

또한 제19사단은 이 기회를 틈타 동만지방을 침략할 계산이었지만,⁶³⁾ 조선군사령관과 조선총독의 반대로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그렇지만 조선군은 관동군의 점령지역이 확대되고 항일무장투쟁세력의 저항이 계속되어지자 제19사단 소속 부대를 중심으로 혼성 제38여단을 편성하고 1931년 12월부터 이듬 해 10월까지 하얼빈 등 北滿地方 일대에서 작전을 펼쳤다.⁶⁴⁾ 그런데 東滿地方에서 조선인 항일유격대가 결성되어 투쟁이 활발해지고, 중국인 王德林이 지휘하는 東北救國軍의 일부 병력이 東滿地方으로 이동하면서 이 곳에서 일본의 통치력이 흔들리고 조선의 치안에도 직접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조선군은 1932년 4월 제19사단 병력으로 간도임시과 건대를 편성하고 항일무장투쟁 세력을 탄압하였다.

이처럼 1920년대 초반 조선군은 외무성의 외교노선을 정면에서 부정하지 않은 가운데 재만조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선총독부와 호흡을 맞추었다.⁶⁵⁾ 그러나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일본군이 외무성의 방침과 다른 행동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軍事가 外交를 앞서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1931년 9월 관동군과 조선군의 만주침략이 그 단적인 상징이다. 조선군은 관동군과 함께 만주를 침략했지만, 이후 대외침략의 경계선이 만주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본토 및 소련으로 되면서 關東軍의 비중이 커졌다. 이에 따라 對蘇作戰에 대한 주도권도 확실히 관동군에게 넘어갔고, 조선군은 안정된 후방기지로서 관동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로 바뀌어 갔다. 대륙침략의 선봉부대였던 1910년대, 또는 1920년대 초반과는 명확히 다른 위상인 것이다.

VI. 일상적 전시동원체제와 조선군(1937~1945)

1. 조선군에서 第17方面軍으로의 개편(1945)

1937년 7월 일본은 중국본토를 침략하였다. 조선군 제20사단과 1개 육군 비행중대도 7월 11일 응급동원령에 따라 중국의 天津 일대에 투입되었다. 만주침략 때도 들어났듯이 대외침략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戰線이 명확히 형성됨에 따라 식민지 조선도 전쟁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조선군 역시 기본적으로 2개 사단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가운데 새로운 부대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즉, 일본은 1937년 만주와 본국 사이의 연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羅津에 요새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2비행사단 사령부와 비행부대도 설치하는 등 점차 부대를 증설하기 시작하였다.⁶⁶⁾

62) 혼성 제39여단의 활동은 朝鮮軍司令部, 《朝鮮軍歷史》 5, 185 - 198쪽 참조.

63) 神田正種, <鴨綠江(1950. 4. 8)> 林銑十郎, 《滿洲事件日誌》, みすず書房, 1996, 176-177쪽.

64) 자세한 활동상황은 朝鮮軍司令部, 앞의 책 5, 159 - 167쪽 참조.

65) 자세한 내용은 辛株柏, <朝鮮軍의 在滿朝鮮人の 治安問題(1919-1931)-帝國의 運營方式 및 滿洲事變의 內在的 背景과 關聯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 2004.9, '제1장' 참조.

하지만 부대가 늘어난 변화는 이 시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크게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중일전쟁 직후 조선군의 가장 큰 변화는 식민지 조선의 지배정책에 전면적이고 일상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⁶⁷⁾ 즉, 조선군은 1937년 10월 新聞班,⁶⁸⁾ 11월에 國防思想普及部를 각각 설치하고, 軍民一致를 위해 민심을 지도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시국인식과 국방사상을 강력히 보급하고자 하였다. 군민일치를 위한 조선군의 움직임은 1938년 7월에 결성된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1940년 10월 이 연맹이 개편되며 결성된 國民總力朝鮮聯盟이란 官製大衆動員團體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가시화되었다. 가령 제20사단장 출신인 川岸文三郎(1936. 12 - 1938. 12)은 1940년 7월부터 1942년 5월까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사무국 총장이었다. 사무국의 부서 가운데 輔導部 사상부 훈련부 선전부에는 조선군 報道部, 농림부에는 조선군 경리부 소속 장교들이 실무자로 대거 참여하여 관제 대중동원운동을 지도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자동원을 원활하게 하면서 인적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었다.⁶⁹⁾ 조선군은 이미 1936년도 사령부 편성지침에서 국가총동원 업무에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조선군은 물자동원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38년부터 조선총독부 과장급도 참여하는 軍需動員協議會를 매년 개최하였다. 더 나아가 물자동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1939년 11월에 설치된 조선총독부 企劃部의 책임자(將星) 및 과장 이하 부원들도 육해군 장교로 채웠다. 이러한 조치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전시동원 업무에 개입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라면, 1937년 ‘조선총독부 御用掛’를 설치하고 사령부의 참모 가운데 일부를 겸직시킨 조치는 상층레벨에서 사령부와 조선총독부 채널을 조직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의도이다. 진해의 해군에서도 조선군의 총동원 업무에 보조를 맞추며 후원금의 배부와 보급품의 배분 등에 참여하기 위해 1937년 조선총독부에 참모를 파견하였고, 1940년에 京城在勤武官部를 설치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관제개정에 따라 조선총독을 직접 보좌하던 무관부가 폐지되면서 조선총독부와 상설적인 조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조선군과 진해의 해군 으로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 것이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선군은 큰 변화를 겪었다.⁷⁰⁾ 우선, 편제와 작전구역이 바뀌었다. 조선군은 1942년 9월 사단의 보병 4개 연대 체제를 3개 연대 체제로 개편시켰고, 남은 보병 제74, 77연대 등을 중심으로 1943년 5월 평양에서 제30사단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제19사단은 함경북도, 제30사단은 평안도, 황해도, 함경남도, 그리고 제20사단은 나머지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하였다. 둘째, 조선군의 기본임무가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戰況에 따라 예하 사단이 남방으로 대규모 이동하였다. 대본영은 1942년 후반 들어 위태로운 남방전선을 보강하기 위해 제20사단을 뉴기니아 방면으로, 제30사단은 1944년 5월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2월에 신설된 제49사단은 6월에 버마전선으로, 제19사단은 11월에 필리핀전선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셋

66) 宮田節子 編, 《15年戰爭極秘資料集 -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22 - 23쪽.

67) 이하 1937년에서 1940년 사이에 조선총독부의 동원체제에 대한 조선군의 새로운 대응에 관해서는 신주백, <천황 직할의 조선군-식민통치의 물리적 기반> 이재범 외,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사》, 중심, 2001, 285-288쪽을 정리하였다.

68) 조선군은 1938년 1월 이를 보도반으로 개편하였고, 10월에는 다시 少將을 책임자로 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69) 인적 자원의 동원문제는 다음 ‘제2)절’에서 언급하겠다.

70) 이하 조선군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준비> 《역사와 현실》 49, 2003, 184-186쪽을 정리하였다.

째, 이런 와중에서 조선군의 중점 작전임무가 對蘇作戰에서 對美作戰 準備로 점차 바뀌어 갔는데, 특히 1945년에 급속히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연안의 감시태세 강화와 제주도 방비문제가 제기되었다.⁷¹⁾

조선군의 편제와 배치, 그리고 임무의 변화는 1945년 들어 조선군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큼 선명하였다. 즉, 1944년 6월 들어 마리아나를 빼앗긴 일본군의 전략적 패배는 명확해졌다. 미군은 1945년 3월 중순 硫黃島까지 점령함으로써 일본 본토를 전투기의 항속권내에 들게 하였다. 이제 일본 본토는 戰場으로 바뀌었고, 미군의 상륙도 충분히 예견되었다. 1945년 1월 20일 일본大本營은 <帝國陸海軍作戰計劃大綱>을 제정하고, 오키나와를 제외한 皇土, 곧 제국본토를 중심으로 한 國防要域을 확보하여 본토를 유지하며 이를 위해 군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기로 결정함으로써 本土戰場化, 곧 本土決戰에 적극 대비하기로 결정하였다.⁷²⁾

새로운 방침에 따라 1945년 2월 27일 조선군은 朝鮮軍管區司令部와 第17方面軍으로 분리되었다. 조직이 분리되면서도 늘어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령관과 참모장은 겸임하였으며, 작전·방위·선박·통신·연료·병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모부장이란 직책이 신설되었고 참모 또한 6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다.⁷³⁾ 결국 조선군이 방위와 교육, 병참을 주된 임무로 하는 교육부대였다면 제17방면군은 작전부대였으며, 조선군의 임무가 대소작전 준비였다면 제17방면군은 대미작전 준비가 주된 임무였다는 점에서 달랐다.⁷⁴⁾ 조선군관구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제17방면군사령관은 3월 28일 경성에서 조선총독, 鎮海警備府司令長官과 만나 조선에서의 막관 총동원을 위해 중앙 - 지방(각 師管區) - 지구(道の 지구사령관구) 연락위원회를 조직하고, 작전·방위·정보·운수·생산·노무 등에 집중하기로 합의하였다.⁷⁵⁾ 최상급 레벨에서부터 최말단 군조직 및 행정단위까지 일치된 조직관계를 확보하여 조선에서 사람과 물자를 최대한 동원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후 제17방면군은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세 차례에 걸쳐 호남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戰力을 급격히 보강하여 본토결전에 대비하였고(뒤의 <지도 3> 참조), 관동군은 함경도지방에서 소련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중국본토로부터 병력을 대폭 보강하고 진지구축에 나섰다.⁷⁶⁾ 조선총독부도 여기에 호응하여 조직을 ‘간소화’시키며 조선인 동원과 물자 수송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⁷⁷⁾

71) 제주에 대해서는 <本土作戰記錄> 第5卷 第17方面軍(1946. 1. 10), 3-6쪽 참조. 제주도의 일본군에 관한 연구는 塚崎昌之, <濟州道における日本軍の‘本土決戰’準備-濟州道と巨大軍事地下施設> 《靑丘學術論集》 22 2003 참조.

72)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앞의 책 <10>, 9 - 13쪽에서 재인용.

73) <軍令陸甲 第13號 方面軍司令部, 軍管區司令部臨時編成, 第321次復歸(復員)要領(1. 22)> 《軍令綴》 3

74)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준비>; 앞의 책 49, 187쪽.

75) <朝參電 第1847號(3. 20)> 《機密作戰日誌(乙綴)》; 朝鮮軍殘務整理部, <第17方面軍作戰準備史>. 이하 ‘<第17方面軍作戰準備史>’로 줄임

76) 1945년 5월 이후 관동군의 전력은 다음과 같다. 24개 사단, 9개 독립혼성여단, 1개 국경부시대, 2개 독립전타여단, 1개 기동여단, 2개 비행단에 70만 명 가량의 병력이 있었다. 관동군이 사실상 지휘하는 만주국군도 15만 명 가량 있었다. 그런데 1945년 초까지도 태평양전선으로 많은 병력을 이동시켜야 했고, 신규병력을 중심으로 5개 사단을 급속히 증설한데 불과하였으므로 實質戰力은 8.5개 사단 수준이었다.

77) 자세한 것은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준비> 앞의 책 49, 188-195쪽 참조.

2. 지원병과 징병을 통한 인력수탈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급격히 확대되는 전선에 배치해야 할 병력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본토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로 병력자원을 징발할 수 있는 식민지는 조선뿐이었다. 그런데 이미 조선군사령부도 1932년부터 조선인 징병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⁷⁸⁾ 1935년부터 지원병제 실시에 관해 건의하기도 하였다.⁷⁹⁾ 또 南次郎 조선총독도 조선에서 달성하고 싶은 2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취임 당시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⁸⁰⁾ 따라서 조선의 최고 지배자들 사이에서 조선인을 일본군인으로 만들 필요성과 단계적 과정에서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가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형성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였다.

육군성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한달 이전인 6월에 조선에서 지원병제를 실시하는 문제에 관한 의견을 조선군사령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조선군은 7월 2일자 <朝鮮人志願兵制度二關スル意見>에서 “시험적 제도”로서 지원병제도를 創定할 것을 육군성에 제안하였고, 조선총독부 역시 이를 “熱望”하여 조선군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11월에 <朝鮮人志願兵制度實施要領>을 작성하였다. 12월 24일 일본 내각은 조선인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1938년 2월 23일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었다. 같은 해 12월 400명이 모집된 이후 1943년까지 16,830명이 지원병으로 현역에서 복무하였다.⁸¹⁾

조선군은 “조선인에게 황국의식을 確把”시키고 “장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험적 제도로서” 지원병제도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조선인 지원병은 滿 17세 이상 20세 미만의 보통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여야 했다. 조선군은 초등교육과정에서 “조선 아들에게 일본정신의 교육을 진작 철저하게 시켜 ‘우리들은 황국 일본의 신민이다’라는 강한 신념과 긍지를 견지하게” 하도록 조선총독부에 요구하였다.⁸²⁾ 이에 조선총독부는 특별지원징병제와 징병제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무국 주도로 <國民教育二對スル方策(1937. 8)>이란 별도의 책자를 만들었다. 그들은 1960년에 이르면 보통학교를 졸업한 징병적령자 가운데 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78%, 일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이때까지 보통학교를 확충하고 관립사범학교를 증설하며 “1938년 4월부터” 학교명칭을 통일하고 교육내용도 쇄신하여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⁸³⁾

결국 1938년 4월부터 실시된 제3차 조선교육령은 군사적 목적을 교육령이라는 이름으로 위장

78) 1919년 조선군사령부 참모부에서는 3.1운동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징병제를 언급한 적도 있다.

79) <徵兵制施行感謝敵美英擊滅決意宣揚全朝鮮公職者大會記錄> 36쪽, 井原 조선군참모장의 발언이다.

80) 御手洗辰雄, <南次郎>, 南次郎傳記刊行會, 1957, 434쪽.

81) 지원병제도에 관해서는 宮田節子, <志願兵制度の展開とその意義>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來社 1985; 강창일,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조선인 군사동원> 《한일간 미청산의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283-294쪽. 참조.

82) <密受 第1562號 朝鮮人志願兵制度二關スル件(1937. 12. 14)> 《陸軍省密大日記》 S12-1, 696쪽. 朝鮮軍司令部, <朝鮮人 志願兵制度二關スル意見(1937. 6)>의 일부다.

83) <密受 第1562號 朝鮮人志願兵制度二關スル件(1937. 12. 14)> 《陸軍省密大日記》 S12-1, 751 - 755쪽. 朝鮮總督府, <朝鮮人志願兵制度實施要領(1937. 11)>의 일부다.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천황에 대한 충성만이 애국이고,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려는 법령이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조선교육령(1922)에서 빠졌던 제1차 조선교육령(1911)의 제2조, 곧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기른다는 내용이 각 학교규정의 제1조에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소학교), “忠良有僞의 황국신민을 양성”(중학교), “충량지순한 황국여성을 양성”한다(고등여학교)로 다시 포함되었다.⁸⁴⁾ 이때 ‘국민’이 ‘황국신민’으로 바뀌었고, 청소년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충성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忠’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점은 공통된다.

1941년 12월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육군성 군무국 군사과는 새로운 戰況에 따라 수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력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조선에서 징병제 실시를 검토하였다. 마침내 1942년 5월 8일 일본 내각은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9일에 이 사실을 공포하였다.⁸⁵⁾

일본이 비록 징병제의 실시가 내선일체를 진정으로 구현한 것이고, 황국신민에게 주는 특권이며, 대동아공영권 내에서 조선인이 지도적 지위를 보장하는 장치라고 선전했지만 조선의 현실은 이를 수용할 만한 정신적 교육적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⁸⁶⁾ 일본은 천황에 끌려 징병제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1942년 10월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을 발표하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조선인 남자를 대상으로 일본어교육과 정신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12월 들어 1946년부터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국어보급운동요향>이 공포된 이래 ‘國語常用全解運動’이 실시되었다. 육군특별지원병제도는 일본의 황민화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면, 징병제도는 이 정책을 전면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는 와중에서 첨예화된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를 부정하는 空洞化 現狀을 심화시켰다.⁸⁷⁾

징병제는 1944년부터 실시되었지만, 본격적인 것은 1945년부터였다. 앞서 인용했듯이, 조선군 징병 주입참모였던 吉田俊隈에 따르면 “학도지원병을 포함하여 약 2만의 지원병과 약 40만의 징병”이 실되었다고 회고하였다.⁸⁸⁾ 그런데 1944년 제1차 징병검사자 23만여 명 가운데 현역병에 입대한 사람은 육해군 합쳐 5만 5천여 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보충병 판정을 받았다. 또 1945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도 22만여 명이였다. 그렇다면 약 34만 5천여 명의 징병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기록에 따르면, 제1차 징병검사 이후 대부분의 보충병들은 “在郷에서 대기” 하였으나 “本土의 兵批鞏化”를 위해 “차례대로 각 勤務隊, 現地 自活要員으로 소집”되었다.⁸⁹⁾ 여

84) 《文教の朝鮮》 152, 1938.4, 25쪽. 48쪽. 60쪽.

85) 징병제 제정과정은 宮田節子, <徵兵制度の展開> 앞의 책, 96 - 103쪽; 강창일,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조선인 군사동원> 앞의 책, 294 - 302쪽. 참조.

86) 宮田節子, <徵兵制度の展開> 같은 책, 105-109쪽 참조.

87) 학교교육 등 청소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단적으로 들어나는데, 이에 관해서는 변은진, <일제의 식민통치논리 및 정책에 대한 조선민중의 인식(1937 - 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2000.9; 辛珠柏, <日帝의 教育政策과 學生의 勤勞動員(1943-1945)> 《歷史教育》 78, 2001.6 참조.

88) 吉田俊隈, 《朝鮮軍歷史別冊朝鮮人志願兵徵兵の梗概》22쪽. 실제 육군만을 따지면 지원병은 20,723명이었고(《朝鮮軍概要史》, 83쪽), 해군을 포함해도 23,723명 정도였다. 日本入國管理局의 조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동원된 조선인 군인·군속은 364,186명이였다(<第2次大戦に動員された朝鮮人の軍人,軍屬について(1955. 6)>). 이 숫자의 정확성은 검토해야겠지만, 대체적인 규모는 짐작할 수 있는 통계이다.

기서 1945년에 대규모 동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요시다가 말하는 근무대와 자활요원이란 무엇인가.

1945년 8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제17방면군의 부대는 야전부대, 요새부대, 군관·사관구부대 등과 함께 野戰勤務隊, 特設勤務隊, 특설경비부대 등으로 구분되었다.⁹⁰⁾ 근무대는 각종 군사 시설을 경비하고, 진지구축과 화물수송, 비행장·도로·항만 등을 건설하며 대미·대소작전 준비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동원된 부대였다. 또한 자활요원과 농경근무요원은 일본 본토를 방어 하는데 최대의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식량문제를 군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결성된 부대로서 농경지를 개척하고 고구마를 주로 생산하였다.⁹¹⁾ 결국 1945년도 징병 조선인의 대부분이 현역병, 곧 전투부대원이 아니라 勞務者로 徵兵되었던 것이다.⁹²⁾

제17방면군은 대규모 병사노무동원을 안정적인 기동력 있게 실행하기 위해 5월 16일자 ‘칙령 제300호’로 징병사무를 군관구, 사관구, 지구사령관구(병사구)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개정하였다.⁹³⁾ 따라서 막판 총력전의 상황에서 징병을 통해 대규모로 동원된 조선인 노무부대는 필자가 자료에 의거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인적인 측면에서 強制動員史를 정리한다면 노동력으로서 징병된 병사노무동원이 1945년도 강제동원사의 특징이라고 보아야 한다.⁹⁴⁾

VII. 맺음말

이상으로 1880년부터 1945년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편제와 주요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기 보다는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일본의 지배질서에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한국현대사에 끼친 영향 등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겠다.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본국의 대외침략정책에 필요한 요구를 실현하는 선봉대였다. 1910년 이전에는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해 대한제국의 무력을 제거하고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기득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선봉장이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력이 대중의 일상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리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치안유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자 1920년대 들어서는 일본의 중국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심지어 앞서 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선도하기도 하였다. 군국주의화의 끝은 擴戰과 敗亡이었는데,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일상적 전시동원체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조선의 최고지위에서부터 최말단 기구까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주장과 태도는 본국의 정책을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1944,45년에만 40만 여명의 조선인이 일본군에서 복무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1945년 이후 한

89) 吉田俊隈, 앞의 책, 18쪽.

90) 《第17方面軍作戰準備史》의 附表4

91)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陸軍軍戰備》, 1979, 471쪽.

92) 병사노무동원의 전반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준비> 앞의 책 49, 200 - 20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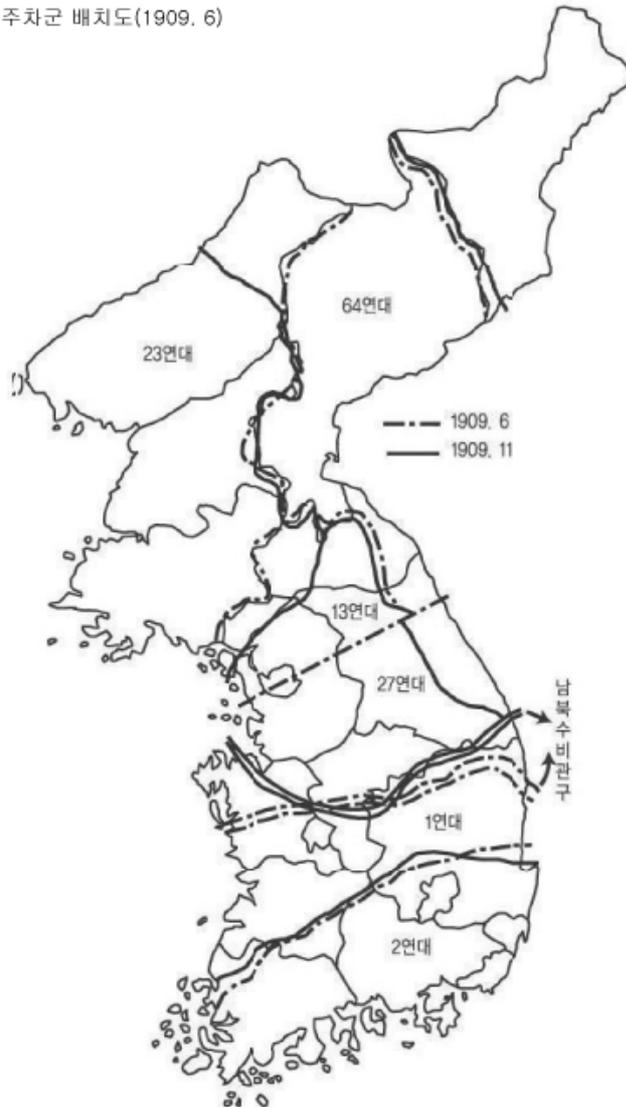
93)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陸軍軍戰備》, 488쪽.

94) 신주백, 앞의 논문, 앞의 책 49, 206쪽.

국사회는 친일간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친일세력에 의해 사회가 실질적으로 지배되었다. 식민지 시기 이러한 경험은 인명을 경시하고, 군대가 정치에 간여하여 정당한 도덕적 명분과 절차적 합법성에 따른 민주주의를 무시하게 하였으며, 전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며 성실한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지도 1>

지도 1 한국주차군 배치도(1909. 6)



출전 : 辛珠柏, <湖南義兵에 對한 日本 軍 憲兵 警察의 彈壓作戰> 《歷史教育》 87, 2003

[비평문]

모리야마 시게노리

본 연구는 188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이하 조선주둔일본군의 변천을 편성과 주요 정책 양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우선 서문에서는, 연구 동향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한 일본군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그 이유는 다른 해외 주둔군에 비하여 주한 일본군의 비중이 낮고, 또 식민지사 연구 그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연구는 거의 없고, 또 韓國軍事史에서는 식민지기를 광복군과 독립군의 무장투쟁사로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현대사를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연구가 불가결하다. 이하, 각 장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1880년에서 1904년까지, 공사관 수행원에서 출발한 주둔 일본군은, 임오군란에서 갑신정변 나아가 청일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확대되었고, 1903년에는 한국주재사령부가 서울에 설치되었다. 군의 역할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정부에 대한 간섭과 조종에 있었다.

둘째, 1904년에서 1910년까지, 러일전쟁시에 한국 주재군이 편성되고, 전후에 2개 사단 체제가 갖추어졌다. 그 주목적은 러시아의 복수전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으며, 국내 치안 유지에도 헌병이 고문경찰과 함께 투입되었다. 1907년 정미조약으로 한국군대를 해산시켰으나, 이는 의병전쟁을 불러 일으켰다. 군은 대토벌작전을 실시하여, 1909년 국내의 조직적 항일투쟁 세력을 소멸시켰다.

의병운동에 대한 탄압작전은, 당초 탄압 일변도에서 회유진술을 채용하게 되었고, 이후 대토벌작전은 지구별작전 제1차계획, 뒤이어 귀순정책을 부활시킨 제2차 계획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1910년부터 1919년까지 한국병합으로 한국주재군은 조선주재군으로 개편되었고, 후에 주둔군으로서 상주하게 되었다. 지휘권 중에서 군령부분은 육군대신이, 통치부분은 총독이 나누어 가졌으나, 총독은 출동명령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작전권역은 러시아의 복수전에 대비한 광대한 지역이었다. 나아가 당초 주된 임무는 의병잔존 세력의 탄압에 있었으나, 후에는 헌병대가 치안유지를 담당하였다.

헌병대는 <총독정치의 보급>을 위해 분산 배치되어, 조선인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직원 수는 7900인 전후였으며, 재정적 문제로 큰 변동은 없었다.

넷째로, 1919년부터 1937년까지, 우선 3·1 운동의 결과, 총독은 출병요청권을 갖게 되었으며,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전환되고, 헌병의 국경감시, 통제업무는 경찰이 대행하게 되어, 헌병의 분산 배치는 집중 배치로 바뀌어, 3~4개의 국경 수비대가 설치되었다.

또, 3·1운동 후, 군은 조선의 현실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대러시아 작전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1920년에는 간도에 침략하여,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월경하였다. 진자는 항일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후자는 관동군의 후방 방어를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군은 점차 후방기지화 되어갔다.

다섯째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에, 일중전쟁 개시에 따라 조선군은 중국에 투입되었고, 부대

도 증설되었다. 그러나 그 이상 중요한 변화는, 지배정책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국가 총력전 체제기에 군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중심에 위치하였다. 나아가 태평양전쟁 개시에 따라서 제30사단이 편성되어, 지방에서 전황에 따라 남방전선에 파견되었다. 1945년에는 본토 결전에 대비하기 위해 대러시아전과 함께 대미국전의 대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동원과 물자수송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이 시기 최대의 과제는 병력자원의 동원이며, 그것은 1938년 조선인 지원병제도로, 나아가 1944년부터는 징병제 실시로 실현하였으며, 실태는 병사노무동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약 40만인이 일본군으로 복무한 경험을 가졌던 사실은, 해방 후,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였던 탓도 있지만, 군대의 정치관여 등, 한국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일본군의 편성 및 정책의 변천에 초점을 두어, 한국 근현대사에서 독자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분야의 연구는 자료의 제약에서 많지 않으며, 귀중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자료의 제약 상 어쩔 수 없지만, 군의 제도적 변천 내지는 지배정책이 준 역할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예를 들어, 사단 레벨, 나아가 군대 레벨의 행동 등, 주한 일본군의 실제 행동이 충분히 해명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보다 많은 사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로, 그것은 주둔군의 일상업무가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의문을 생기게 한다. 확실히, 의병운동이 왕성하였을 때에는 탄압에 종사하였을 터이지만, 1920년대에는 본래의 대러시아전에 대비하는 임무로 복귀한 후는 어떠하였는가. 또 조선사회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군이라고 해도 군수품공급 등 인적·물적 교류를 갖지 않았을 리가 없다.

셋째로,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군이 지배정책에 준 역할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확실히 침략의 물리적 기반이며, 첩병이고, 때로는 조선 국외의 침략도 행하였지만,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며, 충분히 실증된 것은 아니다. 또 그것과 관련하여, 조선 총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국 군부와의 관계, 특히 승진을 포함하는 인사제도는 어떠하였는가. 총독과 사령관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리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군 재정에 대한 실태분석도 과제이다.

이상과 같이, 규명해야 할 과제가 팽대하다. 그러나 연구자수·연구체제·자료수집상황 등, 제약요소도 팽대하다. 그와 같은 제약 속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본 연구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